

5·18 태권도 침단고 준우승

金 3·銀 1·銅 1 단체 2위
전국 中·高 2032명 참가

태권도 꿈나무들의 열기가 빛고를 광주를 뜨겁게 달궜다.

제14회 광주 5·18 민중항쟁추모기념 시장기 전국 남녀 중·고교 태권도대회가 23일 광주 빛고를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지난 16일 개막해 8일간 계속된 이번 대회에는 남고부 584명, 남중부 1029명, 여고부 223명, 여중부 196명 등 총 2032명의 선수가 참가해 선의의 경쟁을 벌였다.

대회는 권급과 플라이급, 페더급 등 11체급(고등부 10체급, 중등부 11체급)으로 나눠 체급별 토너먼트로 진행됐다.

침단고는 금메달 3개와 은메달과 동메달을 하나씩 수확하며 부산체육고에 이어 단체 2위를 차지했다.

남고부에서 김영석(권급)·선민욱(라이트급)이 동반 우승을 차지했고 L-미들급 김태원은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여고부에서는 권급의 김영혜가 금메달, 플라이급의 김상아는 은메달을 추가했다.

문성고 노광훈도 남고부 웰터급 결승에서 한성고 원종훈을 7-6으로 누르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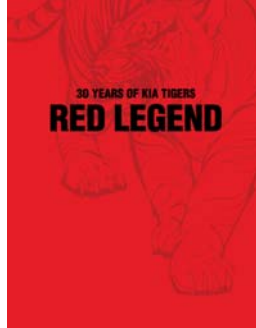
전국중 이광부는 남중부 헤비급 우승 타이틀을 가져왔고, 체육중 강수령은 여중부 웰터급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대회 마지막날에는 광주체육고 김성태(페더급)가 은메달을 추가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타이거즈 30년 역사

'RED LEGEND' 발간



KIA 타이거즈가 한국 프로 야구단 최초로 팀의 30년 역사를 담은 'RED LEGEND'를 발간했다.

타이거즈 30년사 'RED LEGEND'는 프

로야구 출범과 타이거즈 창단 30주년을 기념해 발간됐으며 A4 4백매 양장본(케이스 포함)으로 제작됐다.

화보와 히스토리로 구성된 책자는 900페이지에 달하며 1982년부터 2011년까지 타이거즈의 영광과 감동, 그리고 눈물의 순간이 담겨있다. 특히 타이거즈가 우승한 10차례의 한국시리즈 모든 차전이 세세하게 묘사돼 우승의 감동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다.

또 초대 감독 임광부부터 타이거즈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김응용 감독 및 김성환, 유남호, 서정환, 조병현 감독 등 타이거즈 리더십을 조망했고 타이거즈 전설을 만들어낸 투수와 타자, 외국인 선수들의 열전을 기록했다.

타이거즈 선수들의 국제대회 활약기와 각종 기록, 트레이드 역사와 타이거즈가 '절대 강자'로 우뚝 설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한 당시 추억들과 국내 프로야구 관계자들이 들려주는 생생한 이야기도 수록했다.

이외에도 타이거즈 30년 동안 만들어진 다양한 뒷이야기들을 에피소드로 꾸며, 부록편에는 각종 기록과 인명록이 담겼다.

KIA 김조호 단장은 "30년 동안의 박찬 감독의 순간들을 재조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타이거즈 정신과 타이거즈 야구를 창조해 내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김선빈 '성장통'

땅콩마 유격수 '땅볼 트라우마' ... "회전 심한 타구엔 부상 악몽"

KIA 타이거즈의 '작은거인' 김선빈이 성장통을 앓고 있다.

이용규의 역전 결승타로 팀이 4연패에서 벗어난 22일, 덕아웃 한쪽에 시무룩한 표정으로 앉아있던 선수가 있었다.

2회 김태균의 타구를 놓치며 시즌 5번째 실책을 기록한 유격수 김선빈이었다.

김선빈은 지난 18일 앤서니가 선발 등판했던 롯데와의 원정경기에서도 실책을 기록하며 역전의 발미를 제공했다. 보이지 않는 실책까지 속출하는 등 팀 상황과 맞물려 김선빈의 실수가 두드러지고 있다.

22일 실점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2회 실책을 기록한 이후 내야에서 김선빈의 움직임은 매끄럽지 못했다. 예전의 날렵함 대신 무거운 몸놀림을 보인 김선빈은 7회 1사2루에서 적시타를 때려내며 마음의 짐을 털기는 했지만 표정은 밝지는 않았다.

김선빈은 "8회 (이)용규형 타석에서 나에게 기회가 왔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었다. 수비에서 실수를 했기때문에 공격에서라도 내 역할을 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김선빈은 이날 경기가 끝난 후 박기남·윤완주와 특별 수비 훈련을 소화한 뒤에 야 짐을 꾸렸다.

프로야구 최단신 김선빈은 수비때문에 몇 차례 선수생활의 위기를 맞았다.

지난해에는 넥센 앞드리지의 타구를 처리하다 코뼈 잇몸뼈 골절이라는 큰 부



상을 당하면서 또 다른 트라우마가 생겼다.

회전이 심했던 타구에 얼굴을 맞았던 김선빈은 빠르게 두려움을 이기고 그라운드에서 다시 섰지만 아직도 종종 회전이 심한 타구를 처리할 때면 부상의 악몽이 떠오른다.

김선빈은 "지난해에는 얼굴 부상에 대한 부담때문에 얼굴 쪽으로 오는 타구를 처리할 때나 슬라이딩을 할 때 도 조심스럽기도 했다. 얼굴쪽으로 변화가 심한 타구가 오면 본능적으로 움찔하기도 하지만 이제 많이 극복했다"면서도 "부담감을 털고 과감하게 움직여야 하는데 최근 실수가 계속되면서 움직임이 좋지 못하다"고 밝혔다.

부상에 대한 두려움까지 이겨냈지만 이번에는 실수에 대한 부담감이 김선빈을 잡고 있다.

김선빈은 지난 시즌 세 타자 연속 홈런이 나왔던 롯데 원정경기 연장승부에서 광범한 병살타성 타구를 놓치며 패배를 자초한 경험이 있었다. 지난해 악몽의 땅이었던 부산에서 다시 또 실수를 남기고 오면서 김선빈의 마음은 더 무거워졌다.

최단신 선수라는 편견과 끈공 트라우마, 부상까지 겹쳐서 팀의 주전 유격수로 선 김선빈이 더 큰 선수로 성장하기 위한 또 다른 시험을 받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경기 후 특훈 극복노력

공격으로 만회 하고파

선빈을 괴롭혔다.

입단 초반 평범한 플라이 타구를 맞았을 때 김선빈의 발이 뒹겼다. 계속된 훈련에도 김선빈의 실수는 멈추지 않았다. 김선빈이 '끈공 트라우마'를 극복하는데 2년이 넘는 시간이 필요했다.

지난해에는 넥센 앞드리지의 타구를 처리하다 코뼈 잇몸뼈 골절이라는 큰 부

① 덕아웃 말말말

▲도 전화가 왔어 = 한·일프로야구 레전드 매치 선발인 선동열 감독, 전화로 선발 통보를 했던 김인식 KBO 기술위원장이 '뭘 잘만들고 있느냐'고 또 전화를 하셨다며,

▲좋은 세상이야 = 선동열 감독이 반바지 차림으로 훈련을 하는 선수들을 보고, 날이 더워지면서 KIA 선수단은 여름

앤서니·라미레즈 서바이벌 경쟁 "우리 슈퍼스타 K"

용 연습복을 착용하고 있다.

▲27초만요 = 나지완으로부터 캐치볼 요청을 받은 이준호, 땅에 젖은 연습복을 갈아입고 오겠다며,

▲안녕 못해요 = 안녕하냐는 인사에 김상훈, 결정적 순간에 병살타를 치는 등 최근 부진한 모습을 보여 마음이 무겁다며,

▲축하합니다 = 최희섭이 KBS N 스포츠

포츠 이병훈 해설위원을 보고, 이 위원은 지난 21일 경부 끝에 성추행범을 잡아 용감한 시민상을 받는다.

▲슈퍼스타 K예요 = KIA 관계자, 새로운 용병 영입 소식이 언론을 통해 미리 알려지면서 본의 아니게 앤서니·라미레즈의 서바이벌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또...

'멀티 히트'

추신수 9경기 연속안타

클리블랜드 승리 이끌어

추신수(30·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9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했다.

추신수는 23일(한국시각) 미국 클리블랜드 프로그래스브필드에서 벌어진 2012 미국 프로야구 디트로이트 타이거즈와의 홈경기에서 4타수 2안타, 2득점과 볼넷 1개를 골랐다.

최근 9경기 연속 안타를 터뜨리며 타격감

을 이어간 추신수는 시즌 타율을 0.267에서 0.274로 끌어올렸다.

추신수의 방망이는 초반부터 날카롭게 돌았다.

1번타자 겸 우익수로 출장한 추신수는 1회말 첫 타석에서 좌중간에 떨어지는 깨끗한 안타로 포문을 열었다.

추신수는 2번 제이슨 킵니스의 내야 땅볼 때 2루에서 아웃됐지만 클리블랜드는 3번 아스트루발 카브레라가 중월 2루타를 날려 선취점을 올렸다.

3회에는 선두타자로 볼넷을 골라 나갔다.

이어 2루 도루에 성공한 추신수는 4번 트래비스 해프너의 중전안타 때 총알 같이 홈을 밟아 2-3으로 추격하는 점수를 뽑았다.

도루는 시즌 7호.

추신수는 5회에는 큼직한 중월 2루타를 날린 뒤 해프너의 희생플라이로 득점에 3-3 동점을 만들었다.

클리블랜드가 5-3으로 역전한 6회에는 투수 땅볼에 그쳤고 8회 마지막 타석에서는 2루 땅볼로 아웃됐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유일한 **고객 맞춤형 호텔웨딩!!!**

신양파크호텔

오직 한쌍만을 위한 웨딩...
당신의 가장 소중한 순간을 위해 준비 했습니다.

적용기간 7월~8월

예약문의_ 062 - 221 - 4101~3 http://shinyangparkhotel.com

